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검찰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 팩스 02-3480-2704

## 보도자료

2024. 7. 23.(화)

자료문의 : 과학수사부

전화번호 : 02-535-9484

주책임자 : 법과학분석과장

제 목

## 2024년 2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 대검찰청은 기술유출범죄 수사 우수사례 1건 및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실체진실을 발견한 우수사례 4건 등 총 5건을 2024년 2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① **[서울중앙지검]** 1천억원대 합의금을 노리고 불법취득한 삼성전자의 기밀정보를 이용하여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前 삼성전자 IP센터장과 기밀정보를 누설한 삼성전자 직원 등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로 각각 구속 기소하는 등 다수의 기술유출 사범들을 엄단하였습니다.

특허침해소송 담당 미국 법원은 한국 검찰의 수사경과 및 증거 등이 현출된 검찰조서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하고,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위 IP센터장 등의 부정행위를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② **[춘천지검 강릉지청]** 피해자 진술 외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의자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여 다툼이 예상되는 강간 사건(경찰 구속송치)에서, CCTV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비친 희미한 범행 추정 미세 영상을 대검 법과학분석과 영상분석실 영상 감정으로 화질개선 및 확대하여 범행 상황을 밝혀냄으로써 송치된 기존 강간 범죄혐의를 확실히 입증하고, 종래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했던 추가 강간 피해 까지 밝혀내 피의자를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③ **[광주지검 목포지청]** 구체적인 사인과 공범들이 밝혀지지 않은 채 선장이 피해 선원을 지속적으로 때려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만으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검찰 송치 전 삭제되어 복구되지 않았던 범행일경 CCTV 영상 9,700개를 대검 법과학분석과 멀티미디어 복원을 통해 모두 복구하고, 영상 분석과 법의학 자문을 거쳐 범행 경위와 사인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장의 살인 범행을 철저히 입증하고, 선원 3명의 은폐된 살인방조 범행까지 추가로 밝혀 전원 직구속하였습니다.
- ④ **[서울동부지검]** 피의자가 성기 삽입 등 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국과수 감정 결과 피해자 성기에서 피의자 DNA가 검출되었으나 피해자 속옷에서는 정액 반응이 확인되지 않아 '준강제추행'으로만 송치된 사건에서, 대검 디엔에이·화학분석과 재감정을 통해 피해자 속옷에서 피의자 정액·타액 양성반응을 밝혀내 '준강간'으로 기소하였습니다.
- ⑤ **[창원지검 통영지청]** 목사가 신도인 결손 가정의 발달 지연 중학생 2명에게 수개월간 강간 등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교회 간부들까지 동원해 사실을 왜곡하는 등 수사 방해하여 불구속으로 송치되었으나, 송치 전 포렌식에서는 중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던 피의자 휴대전화를 송치 후 재포렌식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하고 시간에 맞춰 수 회 전화하고 그루밍 메시지를 다수 전송한 후 주기적으로 삭제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수사기관 조사 전후 피해자들을 회유하려 한 사실 등 죄질이 중함을 밝혀 피의자를 직구속하였으며, 심리치료 제공 등 피해자들을 지원하였습니다.

※ 상세 선정사유는 '붙임' 참조

▣ 검찰은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붙임: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내역]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1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 수사부	<p><b>삼성전자의 기밀정보를 불법 취득해 특허소송을 제기한 前 삼성전자 부사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일본 기업과 개인적으로 동업하기 위해 위 기업의 무가치한 특허를 매입한 정부출자기업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례</b></p> <p><b>사안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前 삼성전자 부사장 피고인 A 등의 삼성전자 기밀문건 취득 및 이를 분석해 삼성전자 상대로 특허침해소송 제기 등 사용 <b>【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b></li> <li>○ □□社 대표 피고인 D 등의 일본 ○○○社 무가치 특허 매입 <b>【업무상배임】</b></li> <li>○ ◇◇社 출원그룹장 피고인 C의 상납 비리 등 <b>【배임수·중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b></li> </ul> <p><b>선정 사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속한 수사착수로 결정적 증거 확보하여, 삼성전자를 위협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기밀정보를 사용한 행위를 규명하였으며, 수사를 통해 NPE 운영자의 불법행위를 최초로 확인하여 단죄한 사안임</li> <li>○ 미국 법원은 한국 검찰의 수사 경과 및 증거 등이 담긴 조서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 A 등이 부정한 행위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재소송 불가능한 기각 판결(dismissal with prejudice)을 선고</li> </ul> </li> <li>○ 정부출자기업의 대표이사가 일본 기업과 개인적으로 동업하기 위해 정부지원금으로 마련된 자본으로 위 일본기업의 무가치한 특허를 매입한 사실을 적발하여, 정부예산을 유용한 사실을 밝힘</li> </ul>
	안동건 (35기)	
	김대철 (변1회)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2	강릉지청 형사부	<p><u>피의자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명확한 증거가 없이 구속송치된 성폭력 사건에서, 송치 기록에 포함되어 있던 영상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범행장면이 작고 희미하게 촬영된 것을 확인한 후 화질개선 및 부분확대개선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고, 피해자도 기억하지 못했던 추가 범행을 밝힌 사례</u></p> <p><b>사안 개요</b></p> <p>○ '24. 3. ~ 4.경 이전에 약 3개월간 교제하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총 6회에 걸쳐 각각 피해자를 강간 <b>【강간】</b></p>
	국진 (37기 現 대검찰청)	<p><b>선정 사유</b></p> <p>○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약 39분 분량의 영상 중 피의자와 피해자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장면은 약 2분 밖에 되지 않았고, 이외 약 37분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촬영된 영상의 사각지대에 있어 음성만 확인되었는데,</p> <p>- 위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우연히 나머지 약 37분 동안의 범행 장면이 비쳐 촬영되었음을 확인하고, 대검 법과학분석과에 영상 확대·화질개선 등 영상 감정 요청하여,</p> <p>- 노이즈 제거, 선명화, 화면 보정, 필터 분석을 적용하여 화질개선 및 부분확대개선을 수행한 결과, 기존 송치된 범행일시 이외에 '24. 4. 18. 새벽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명확하게 확인</p>
	강윤제 (변10회)	<p>○ 피의자는 경찰 및 검찰 1회 조사까지는 송치된 강간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대검 법과학분석과의 영상 분석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 모두 자백하였고, 추가 강간 범죄사실을 밝혀 구속기소하였음</p>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3	목포지청 형사2부	<p><u>선장이 선원을 지속적으로 때려 사망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해경이 복구하지 못했던 피해자 사망 당일 CCTV 영상을 복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의학 자문을 받아 관련자들의 살인방조 혐의 인지하고 구속기소한 사례</u></p> <p><b>사안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 3.~4.경 선장인 피고인이 선내에서 피해자를 구타하여 학대하던 중, 4. 30.경 피해자를 쇠스랑 등으로 구타하여 의식 소실상태에 빠지게 하고, 다른 선원들을 통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해수를 뿌려 피해자를 저체온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사체를 쇠몽치 등과 함께 그물로 감고 바다에 던져 유기 <b>【살인 및 시체유기】</b></li> <li>○ '24. 4. 30.경 선원 3명은 피해자에게 해수를 뿌리고, 피해자를 방치하여 사망하게 함 <b>【살인방조】</b></li> </ul>
	이경석 (37기)	<p><b>선정 사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경은 사인 불특정한 상태로, 선장인 피의자의 살인 및 시체유기 구속송치하고, 다른 선원들은 단순폭행으로 불구속 송치하였음</li> <li>○ 경찰에서 복구하지 못한 선박 CCTV 영상에 대하여, 검찰은 대검 법과학분석과에 의뢰하여 복구한 피해자 사망일경 CCTV 영상 9,700개 탐색 및 분석하여 사망경위 명확히 함</li> </ul>
	김현지 (변9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법의학 자문위원회에 의뢰하여, CCTV상 피해자는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의식 소실 상태로 보이고, 이런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급격한 저체온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결과 회신받아 사망원인 확인</li> <li>○ 검찰은 과학수사를 통해 사망경위 및 원인을 명확히 하고, 단순 폭행으로 송치된 피의자 3명에 대하여 살인방조 인지 후 직구속 하였으며,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자 지원 실시</li> </ul>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4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p><u>국과수 감정 결과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의자 DNA가 발견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준강제추행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대검 디엔에이·화학 분석과 DNA 재감정을 통해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의자 정액 및 타액 양성반응을 확인하고 피의자의 준강간 혐의를 명백히 하여 기소한 사례</u></p> <p><b>사안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 11.경 피고인의 사무소 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을 마친 피해자와 식사 및 음주를 하고,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호텔 객실로 데려가 강간 <b>【준강간】</b></li> </ul> <p><b>선정 사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과수 감정에서는 피해자 음부에서 피의자 DNA가 검출되었지만, 피해자 팬티의 정액 반응은 음성이었고, 사경은 이를 이유로 준강제추행으로 송치</li> <li>○ 검찰은, 대검 디엔에이·화학분석과에 의뢰하여 피해자 팬티에서 피의자 정액 및 타액 양성 반응을 확인한 DNA 재감정을 통해 준강간 혐의를 명백히 하여, 송치 죄명 변경하여 기소</li> </ul>
	임유경 (34기, 現 서울북부지검)	
	허창환 (43기)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5	통영지청 형사1부	<p><u>교회 신도인 결혼 가정의 발달지연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인 행세하면서 수개월간 강간, 강제추행 등의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를 직구속하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 및 스마일센터 연계 의뢰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 사례</u></p>
	조영성 (36기, 現 의정부지검)	<p><b>사안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 4.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 자신의 교회에서 피해자 ○○를 추행 【성폭범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li> <li>○ '23.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 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을 추행 및 강간하고,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아청범위반(강간, 강제추행), 성폭범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li> </ul>
	정하은 (변9회)	<p><b>선정 사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이 불구속송치한 성폭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범행 부인하는 점, 피해자들이 아동인 점,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직접 보완수사</li> <li>○ 검찰은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피의자가 조사 전후로 피해자들에게 회유를 시도한 사실, 교회 신도들을 통해 2차 피해를 가하여 온 정황 등을 확인</li> <li>○ 성폭력장소에 대한 국과수 감식결과(피의자 및 피해자 DNA, 피해자 속옷과 유사한 섬유조직 검출), 감식현장 사진 확보, 국과수 감정인 조사 등을 통하여 강간 장소를 객관적으로 특정하고, 참고인들 전면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자들 진술 신빙성 보강</li> <li>○ 이 사건은 성직자의 지위, 피해자들의 지적수준을 이용한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로 피의자 범행 중대성 등을 이유로 직구속하여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약자 상대 성폭력 범죄를 엄단하였음</li> </ul>